

바람과 눈을 다스림
공과 애를 모으는 정치

양이원영 보도자료



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| E. yangyi.assembly@gmail.com | T. 02-784-8834 | F. 02-6788-6740

배포일 : 2021년 7월 26일(월)

육상 풍력발전단지 주변 자연생태 더 좋아져

-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KEI), 태기산 생태자연도 '2등급 → 1등급으로 10여년만에 상향'
- 양이원영, “온실가스 감축하는 육상풍력발전소는 숲과 공존하는 인공나무”

양이원영 의원(비례대표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)은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KEI)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 생태자연도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보다 그 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 (#. 자료 첨부)

지난 20일,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해, 풍력발전단지의 생태자연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.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40메가와트(MW; 2MW×20기) 규모로 2007년 공사 착공되어 2008년 11월에 운영, 현재까지 14년간 가동되고 있다.

이날 보고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KEI)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식생훼손은 발전단지 부지와 임도(내부도로)에 한정되어 있었다. 이는 실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주변의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

양이원영 의원은 “공사 당시 상황만 보고 환경훼손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.” 며 “공사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,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” 고 당부했다. 또한 “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중금속, 미세먼지,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,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반면,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.” 며, “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숲과 공존하는 ‘인공나무’ 육상풍력발전소의 보다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.” 고 덧붙였다.

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풍력전담팀, 원주지방환경청,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KEI), 횡성환경운동연합, 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. 끝.

[#. 첨부자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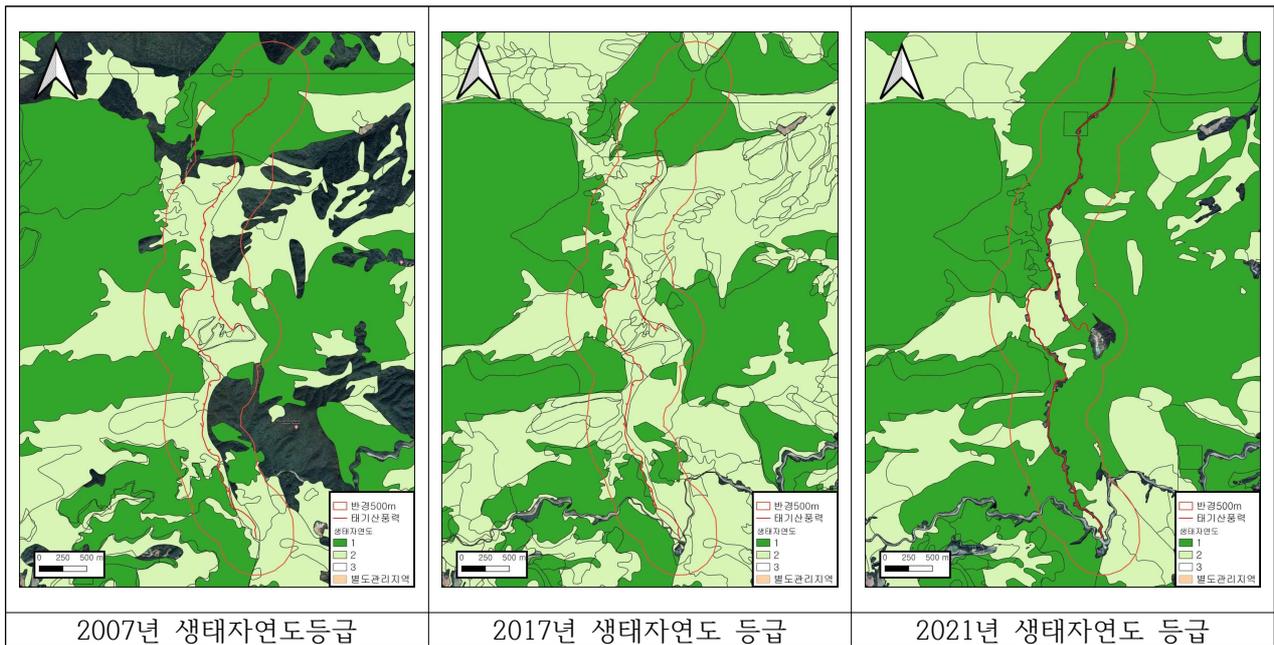
〈태기산 풍력발전소 내부도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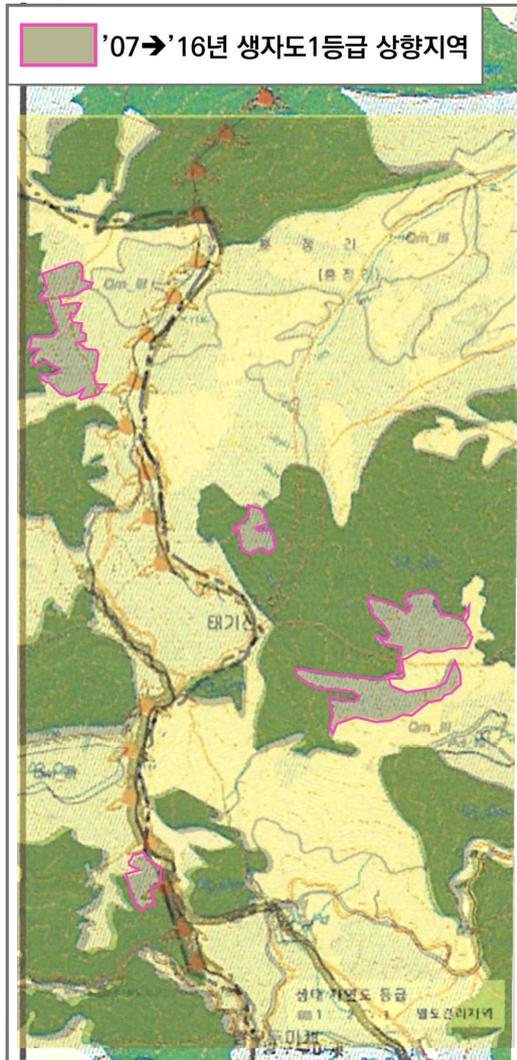
<간담회 사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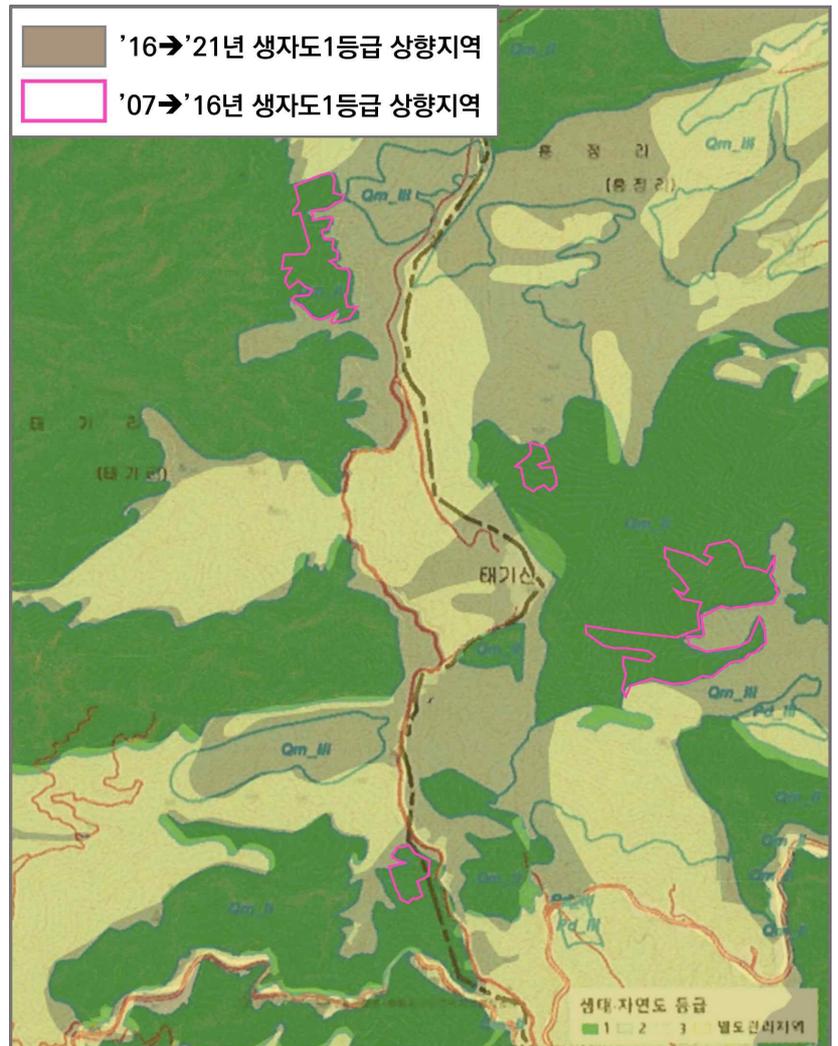
<태기산 풍력단지 생태자연도 등급변화, 출처: 환경부>



<태기산 풍력단지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(지도중첩), 출처: KEI>



<2007년 대비 2009년 변화지역>



<2009년 대비 2015~2016년 변화지역>